

민간경비원의 직무 스트레스, 정신건강 및 대처방식 간의 관계

심 정 선[†]

마음나눔터

사회적으로 각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경비원은 경찰의 부족한 치안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업종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들은 업무 시 각종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이 지각하는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요인 및 대처방식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 지역에 소재한 민간경비업체에 소속된 사원 107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한 후 개별 직무스트레스 요인들과 MMPI-2로 표현되는 심리적 적응상태, 그리고 대처방식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민간경비원들은 주로 물리적 근무환경 및 직무수행에 대한 높은 부담감,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의 부족을 직무스트레스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야외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감, 신속한 상황대처가 요구되는 근무환경 및 엄격한 보고체계와 같은 업무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민간경비원들이 지각하는 직무스트레스는 심인성 신체증상 및 대인관계 상의 갈등으로 표현되는 경향과 연관성이 있음이 나타났다. 셋째, 민간경비원들이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성은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하고 같은 적극적인 대처행동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넷째, 소망적 사고나 정서중심적 대처와 같은 소극적 대처방식은 민간경비원들의 심리적 적응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아울러 선행연구 및 본 연구결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MMPI-2 임상척도 중 반사회성(Pd), 경조증(Ma) 척도는 민간경비원들의 인성적 특성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들을 대상으로 MMPI-2 임상척도로 표현되는 정신건강 요인과 직무스트레스 및 대처방식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번 연구의 제한점 및 민간경비원들의 직무스트레스 개입을 위한 후속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민간경비원, 직무스트레스, 정신건강, MMPI-2, 대처방식

[†] 교신저자 : 심정선, 마음나눔터, ibomnuri007@naver.com

사회적으로 각종 범죄와 재해, 인명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민간경비업(Private Security)이 어느덧 새로운 산업 분야로 정착하였다. 경찰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자비 부담으로 민간경비에 의뢰하거나 자체 경비인력을 채용하여 치안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민간경비업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민간경비원(Private Security Guard)은 민간인 신분으로 고객의 요청에 의해 범죄예방과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최현식, 2004). 이들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범죄 현장, 인명 사고, 재해와 같이 일반인들이 자주 접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이들의 정신건강 및 대처방식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직무스트레스란 직무 수행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위험한 작업 조건 및 환경, 복잡한 직무내용, 업무과중 및 과소, 직장 내에서의 대인관계 갈등, 역할 모호성, 비합리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 보상체계의 비적절성, 가족-일 영역간의 부조화 또는 갈등 등으로 인하여 구성원들이 느끼는 불편함, 압박감, 긴장, 갈등의 유발요인으로 표현된다(박인만, 2006). 직무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선행요인(Stressor, 스트레스원)들에 대한 연구들(김항석과 한광현, 1991; 최미리, 1999; Cooper & Marshall, 1976; Davidson & Cooper, 1981)은 직무스트레스를 개

인의 성격 차원과 업무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잠재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다양한 업무 환경적 요소 중 직무 특성은 직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원에 대한 노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Brown & Campbell, 1990). 따라서 민간경비원 또한 경비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인간관계, 급여, 승진에 대한 불만 등 조직구성원으로서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 또한 갖고 있고, 이러한 제반 스트레스 요인들은 개인의 심리적·신체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민간경비원들의 직무 특성 및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해 개관해보고자 한다.

민간경비의 업무수행 상 특성(김태민, 2002)과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2007)에 제시된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의 정의를 근거로 민간경비원의 주요 업무를 구분해 보면 경비 대상시설의 순회 및 순찰업무, 화재, 폭풍, 홍수 등의 자연적 위해 및 범죄, 절도 등의 인위적 위해와 같은 각종 사건 및 사고에 대한 대응업무, 자사의 경비서비스 홍보 및 기존 고객의 요청사항을 응대하기 위한 고객 서비스의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평상시 이들은 자동차 혹은 이륜차와 같은 이동수단을 통해 주야 교대로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야외에서 순찰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만약 근무 도중 고객처의 경비 기계에 각종 이상 신호가 울리면 해당 지역에 출동하여 위기 상황에 대처하게 된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 하고 민첩한 상황판단을 통해 적절한 직무수행 지침들을 실행해야 한다. 셋째, 평소 고객과의 접점에서 근무하는 까닭에 자사의 경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회사의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불만사항 혹은 고객의 출동요청이 접수될 경우 이에 대한 친절한 응대도 이들의 중요한 업무이다. 이러한 제반 업무들은 대부분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성격을 띠고 있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업무상황이 발생하면 업무량 증가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가중되기 쉽다.

위와 같은 민간경비원의 업무 특성으로 인해 이들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경찰과 같은 중분류인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에 속해 있는데(통계청, 2007), 민간경비업 자체가 경찰의 부족한 치안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필요에서 대두된 업종(Stewart, 1985)이기 때문에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 업무와는 달리 민간경비업은 고객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민간 서비스업에 해당된다(정대용, 김춘광 및 이원행, 2009). 따라서 이들이 경험하는 직무환경 및 직무특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는 경찰과 일부 차이점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본질 때문에 다른 직업군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는데(신성원, 2006), 여러 직업 중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 경찰공무원으로 나타났다(Conley & Woosley, 2002). 예측 불가능한 위기상황을 대면하는 것은 민간경비원들에게도 해당하는 업무특성이므로 이들 또한 타 직업보다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과는 달리 민간경비원은 총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침입자가 무기를 가지고 대항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제한하는 대신(김태민, 2002), 오히려 평상 시 면밀한 경비업무를 통해 범죄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업무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위기상황에서 경찰과 달리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점이 업무수행 시의 긴장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소 순회 순찰 시 자사 고객들을 대면하여 각종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해결해주어야 하며 자사의 경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간접적 영업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등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정서적 문제는 민간경비원의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박영진, 안황권 및 왕석원(2006)은 민간경비업 종사자들이 조직 구성원으로서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상사, 동료 등과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업의 특성 상 민간경비업체의 조직문화는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닌 조직이 가지는 보수성,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상하관계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강민완, 박기범 및 전용태, 2006). 이들은 업무 특성 상 사소한 실수 하나라도 대형사고 및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규칙을 익히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하 직급 간에 매우 엄격한 규율이 적용된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주요한 의사결정은 상명하달식의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계서열이 분명한 보수적인 기업문화로 인해 대인관계 면에서도 상하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김진환과 송상욱, 2006). 국내 민간경비업체의 경우 구성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조직 내 상사와 부하 간 관계의 질이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언급되고 있다(안성조와 안황권, 2005; 정대용, 이원행 및 김춘광, 2009). 김진환(2006)은 민간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직장 내 직무스트레스는 대부분 직장상사와의 부조화와 업무의 부담감, 업무의 역할갈등으로부터 유발됨을 발견하였다. 경찰의 경우에도 적

절한 교육훈련의 부족, 숙련된 기술이 없거나 유능하지 않거나 공정한 대우를 해 주지 않는 상사로 인한 대인관계 상의 갈등이 조직구성원으로서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인 바 (Abdollahi, 2002), 이러한 요인들은 민간경비원에게도 해당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저임금과 폐쇄된 승진기회(김진환, 2006; 나명훈, 2002; 박영진, 안황권 및 왕석원, 2006; 안성조와 안황권, 2005) 등도 민간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해당된다. 김진환(2006)은 민간경비원들이 근무시간에 비해 낮은 보수와 격무에 시달리면서 권한은 거의 없는 근로조건으로 인해 언제든지 보수만 맞으면 타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식이 많고, 실제로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본 결과 민간경비원 중 상당수가 경력 초기에 이직하거나 면직하여 5년 이상 경력자가 많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민간경비원의 제반 업무들은 대체로 타 업종에 활용되기 어려운 특수성을 띄고 있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력개발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현실적으로 동종업계가 아닌 이상 이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위험한 육체활동이 빈번한 점 때문에 연령이 증가하면서 업무상의 장기적인 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김진환, 2009). 이렇게 보수 및 승진기회에 대한 불만족은 민간경비원들의 사기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안성조와 안황권, 2005), 이들의 낮은 직무만족도는 이직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안황권, 2004).

교대근무 또한 민간경비원의 신체적·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교대근무는 수면, 휴식, 식사 등과 관련된 사람의 정상적인 생체리듬을 변화시키고 이에 대한 신체의 적응을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이러한 생체리듬의

변화와 신체의 적응과정은 민간경비원들의 건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정환귀, 2006). 야간 근무를 지속하는 경비원들의 경우 각종 수면 문제 및 두통, 설사 소화기 계통 문제, 신체적 피로, 우울 등의 정신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Alfredsson, Åkerstedt, Mattsson, & Wilborg, 1991). 교대직 근무라는 민간경비업의 업무 특성 상 민간 경호·경비원들의 피로도가 근무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박석, 정석현 및 최무현, 2008), 민간경비원들은 주야가 바뀐 근무일정 탓에 여가 부족으로 인해 친구 및 이성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는 등의 대인관계 관련 스트레스 또한 경험하고 있다(김진환, 2009; 이근춘과 송강영, 2010).

민간경비원이 종사하는 업무환경 자체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경찰 외에 소방관, 간호사 등의 위기상황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와도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타 위기상황 종사자들의 경우 경찰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김구, 2005; 김순양, 구종태 및 윤기찬, 2002; 한상암, 2004), 소방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강병우, 2009) 및 사회심리적 건강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하재혁 등, 2008),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살핀 연구(김환철 등, 2006), 군인들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현명선, 정향인 및 강희선, 2009) 등 직종별로 일련의 연구결과들이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업은 새롭게 대두되는 업종인 까닭에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심리적 증상으로는 분노, 불안, 우울, 집중력의 저하, 의사결정의 곤란, 신경증 등이 있으며 행동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는 수행 감소, 사고율 증가, 알콜중독 증가, 약물남용, 충동적 행동 등을 들 수 있다(김의철과 박영신, 1997). 스트레스 수준이 개인의 능력이나 한계 수준을 넘어설 경우 수면장애, 부정적 자기평가로 이어지며 우울과 같은 정동장애, 신경증, 정신증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를 유발시킨다(이동수와 김지혜, 2001; 장세진, 2002). 경비 업무 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하는 장애 요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한 불안(anxiety), 긴장(tension), 위협(threat), 공포(fear) 등이며, 이러한 심리적 부담은 정신건강의 와해와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직무 시 사고빈발, 난폭성, 폭력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김진환과 송상욱, 2006; 이상철, 2003).

개인의 심리적 적응 상태 및 성격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검사는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인데(이동철, 전현준, 신동훈, 정인성 및 이미영, 2009), MMPI 프로파일 상승으로 설명되는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심각할수록 직무수행 상의 문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Hiatt & Hargrave, 1988). 외국에서도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반사회적 성향 및 공격성(Lipman, 1988)과 같은 성격특성(Meadows, 1987) 및 심리적 부적응(Bernstein, 1981)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 성격검사로서 다면적 인성검사를 언급하고 있다. 한 예로 미국 국립경비회사의 경비원 4,534명을 대상으로 고용 후 MMPI를 실시한 연구에서는 타당도가 확인된 프로파일 중 T점수 70을 초과하는 한 개 이상의 임상척도는 우울증(D), 반사회성(Pd), 편집

증(Pa), 강박증(Pt), 정신분열증(Sc), 혹은 경조증(Ma) 척도로 나타났고 반사회성(Pd) 척도와 경조증(Ma) 척도가 동시에 상승한 경우 업무 장면에서 타인을 향한 반항적 태도를 설명하였다(Bernstein, 1980).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민간경비원들이 대인관계 상의 공격적 성향을 나타내는 양상(김진환과 송상욱, 2006; 이상철, 2003)은 업의 특성이 유사한 경찰의 경우에도 언급되고 있다. 경찰의 경우 우울의 한 범주에 속하는 냉소주의적인 성향이 직무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으며(한상암, 2004), 타인에 대한 무관심함과 냉소주의(Evans, Coman, & Stanley, 1992), 방어적 태도 및 동료조차 의심하거나 자신에 대한 모습을 공개하기를 꺼리는 양상(김상균과 조성호, 2002)은 경찰의 직업적 성격 특성에 해당된다. 경찰들의 MMPI 프로파일에서는 반사회성(Pd) 혹은 내향성(Si) 척도가 이러한 방어적 태도를 반영하는데(Cortina, Doherty, Schmitt, Gary, & Smith, 1992; Detrick, 2001), 반사회성(Pd) 척도는 일반인의 경우 자기주장적이고 솔직하며 진취적인 모습을 의미하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적 태도로 나타날 수 있으며 내향성(Si) 척도는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내적인 불편감을 나타낸다(김중술, 1988).

또한 민간경비원과 같이 야외에서 육체적 활동이 빈번한 업종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양한 신체적 불편감을 느끼는 양상을 짐작해볼 수 있다. MMPI 임상척도 중 건강염려증(Hs), 우울증(D), 히스테리(Hy)와 같은 소위 신경증(neurosis) 척도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감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로 인식되고 모호한 심인성 신체증상으로 표현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건강염려증(Hs)은 수면곤란,

소화기 계통의 불편감 등 원인모를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고, 우울증(D) 척도는 자신의 생활상황 및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무기력해하고 비판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반영하는 지수이며, 히스테리(Hy) 척도는 사람들이 현실적 어려움이나 갈등을 회피하고 모호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서 당면한 문제상황을 부인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김중술, 1988). 타 위기상황 종사자 중 소방관의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MMPI 임상척도 중 건강염려증(Hs), 우울증(D), 히스테리(Hy), 강박증(Pt), 정신분열증(Sc) 척도의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연구(권선영, 이은정 및 김희철, 2009)와 우울증(D), 내향성(Si) 척도와 유의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이동철, 전현준, 신동훈, 정인성 및 이미영, 2009)가 있다. 우울과 같은 감정 상태는 스트레스로 유발되는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이나 타 업종 종사자들과 민간경비원 간의 MMPI-2 프로파일 차이를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동일한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이에 대한 반응은 개인마다 다양하다. 직무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스트레스 수준 뿐만 아니라 개인이 스트레스 요인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또 그러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Folkman & Lazarus, 1985). 이러한 개인의 반응 차를 이해하기 위해 대처(coping)의 개념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Hovanitz, 1986). 대처(coping)란 개인과 환경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이나 갈등,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유정미, 1999),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다양한 분류는 여러 심리적 또는 사회적 적응도를 반영하는 지표들

과의 관계에서 연구되어 왔고, 심리적 안녕 및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사실도 보고되었다(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및 채정민, 2001).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은 크게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중심적 대처로 나눌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0; 김정희, 1987). 문제중심적 대처는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를 다스리거나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지향된 대처를 말한다. 이것은 문제를 규정하고 대안적 해결책을 찾아 이득과 부담을 평가한 후 대안들 중에서 특정 대안을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을 지향한다. 정서중심적 대처는 문제에 대해 정서반응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지향된 대처를 말한다.

따라서 업무 장면에서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중심적 대처는 지각하는 스트레스원에 대해 상이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Fleishman (1984)에 의하면 문제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업무 장면의 경우 협상을 통한 조정 및 화해, 연봉인상을 위한 노력, 직무 변경 등의 행동 등이 해당된다. 반면 정서중심적 대처는 심리적 불편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도하는 일련의 행동으로서 당면한 상황의 긍정적 측면만을 바라보거나 문제로부터 회피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성격 특성과 같은 개인차 변인 또한 대처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Pearlin & Schooler, 1978; Folkman, Lazarus, Gruen, & DeLongis, 1986). Folkman 등 (1986)에 따르면 개인의 성격 특성은 대처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심리적 증상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Hovanitz(1986)에 의하면 개인의 대처방식은 스트레스의 영향으

로 야기되는 정신병리와 같은 심리적 부적응 상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대처행동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개인차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MMPI를 활용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이 있다. Hovanitz(1986)은 생활 상의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대처방식과 심리적 부적응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회피(avoidance)나 자기 비하(self-denigration)와 같은 특정한 대처방식이 MMPI 임상척도의 점수 변화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Hovanitz와 Kozora(1989)의 연구에서는 남성특성-여성특성(Mf) 및 내향성(Si) 척도를 제외한 8개 MMPI 임상척도를 활용하여 개인의 적응 수준을 살펴본 결과 높은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면서도 문제중심적 대처, 인지 재구조화, 사회적 관계추구와 같은 적응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8개 임상척도가 모두 정상범위로 나타난 반면, 정서중심적 대처, 회피, 자기비하와 같은 부적응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1개 이상의 임상척도에서 T점수 70을 초과하였고, 특히 남성의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서도 심리적 적응 수준이 양호한 경우 문제중심적 대처를 많이 활용하였다.

지금까지 민간경비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및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 대처방식 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민간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의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대처방식을 설명하는 정신건강 요인이 존재하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민간경비원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대처방식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는 한국에서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민간경비업을 대상으로 일련의 연구들이 실시되고 있으나

경비업 분야의 주요 학회인 한국민간경비학회에 2002년 창간호부터 개재된 131편의 논문 중 민간경비와 관련된 연구는 51편(38.9%)에 불과하고(조민상, 명도현 및 박한호, 2009), 이 중에서도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의 스트레스가 정신건강 및 대처방식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살펴봄으로서 향후 민간경비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 개입을 위해 필요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민간경비원들이 지각하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해볼 것이다. 이후 이들이 지각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들과 MMPI로 표현되는 이들의 심리적 적응상태 혹은 성격특성이 대처방식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 지를 분석해볼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서울 지역에 소재한 민간경비업체의 사내 직무교육과정에 입과한 사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용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 후 회수하였다. 이 때 다면적 인성검사(MMPI-2)의 경우 타당도 척도 중 하나라도 T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검사 프로파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응답내용이 무성의한 설문지 또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응답인원 121명 중 14명을 제외한 총 10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도구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적인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찾기 위하여 개발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 장세진 등, 2005)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기본형 43문항과 단축형 24문항의 두 종류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본형을 사용하였다. KOSS는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의 8개의 하위영역과 총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환경 영역은 작업방식의 위험성이나 신체 부담 등 근로자가 처해있는 일반적인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 영역은 시간적 압박이나 과도한 직무 및 책임감과 같은 직무에 대한 부담 정도, 직무자율 영역은 의사 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 활용성의 수준, 관계갈등 영역은 조직 내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부족의 정도, 직무불안정 영역은 구직 기회, 고용불안정성 등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 조직체계 영역은 조직의 지원 정도나 운영 체계, 보상부적절 영역은 업무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보상 정도의 적절성, 직장문화 영역은 집단주의적 문화, 성적 차별이나 직장의 분위기를 의미한다. 본 척도의 점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영역별 환산점수 = (실제점수-문항 수)/(각 영역의 최고점수-문항 수)×100
 직무스트레스 총 점수 = (각 8개 영역의 환산점수의 총합)/8.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합치도는 .89였으며 하위요인별로 물리환경 .80, 직무요구 .94, 직무자율 .88, 관계갈등 .86, 직무불안정 .87, 조직체계 .93, 보상부적절 .89, 직장문화 .86으로 나타났다.

다면적 인성검사

다면적 인성검사(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2)는 기존 MMPI를 수정 보완하여 만든 질문지로 총 56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리적 부적응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임상장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척도는 8개의 타당도 척도와 10개의 임상척도, 15개의 내용척도와 그 외 보충척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별 원점수는 규준표 상에서 T-점수로 환산된다. T-점수는 50을 평균을 의미하며 표준편차는 10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척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임상척도는 건강염려증(Hs), 우울증(D), 히스테리(Hy), 반사회성(Pd), 남성특성-여성특성(Mf), 편집증(Pa), 강박증(Pt), 정신분열증(Sc), 경조증(Ma), 내향성(Si) 척도로 구성되었다.

대처방식 척도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68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개정된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토대로 하여 김정희와 이장호(1985)가 번역 후 김정희(1987)가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6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소망적 사고, 정서중심적 대처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중심적 대처는 문제행동을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개인, 환경 관련 요인에 직면하여 그 원인 자체를 변화시켜 해

결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 추구는 다른 사람과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결해 나가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소망적 사고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함으로써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행동을 의미한다. 정서중심적 대처는 다양한 스트레스원으로 인해서 나타난 감정적인 위협을 조절 또는 통제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합치도는 .80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 문제중심적 대처 .82, 사회적지지 추구 .80, 소망적 사고 .79, 정서중심적 대처 .80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생활습관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KOSS 8개 하위영역 및 전체 환산점수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KOSS 8개의 하위영역 점수와 총점, MMPI-2 임상척도 및 대처방식 척도와 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민간경비원들의 정신건강 요인이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대처방식 척도와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난 MMPI-2 임상척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대처척도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련의 모든 과정은 Windows SPSS 12.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생활습관 관련 변인에 대한 빈도 및 백분위 분포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남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25.12세였고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이 37명(35%), 고졸이 59명(55%)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92명(86%)으로 대다수를 이루었으며 평균 근속기간은 12.2개월이었고 입사 6개월 미만이 42명(39%), 입사 13-18개월 차가 58명(54%)으로 분포하였으며 종교의 경우 무교가 72명(67%)이었다.

생활습관의 경우 1주간 음주횟수는 1회 이하가 64명(60%), 2-3회가 35명(33%)으로 나타났다. 흡연자는 74명(69%)이었으며, 식사습관의 경우 하루 세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가 29명(27%), 불규칙적인 경우가 77명(73%)이었다. 운동습관의 경우 규칙적 운동을 하는 사람은 46명(43%),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61명(57%)이었으며 취미생활이 있는 사람은 67명(63%), 없는 사람은 40명(37%)이었고, 수면량의 경우 5-6시간이 91명(85%)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스스로 지각하는 건강상태의 경우 ‘매우 좋다’가 15명(14%), ‘좋다’가 33명(31%), ‘그저 그렇다’가 44명(41%), ‘나쁘다’가 15명(14%)으로 분포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수준

민간경비원들이 지각하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해보기 위해 KOSS 8개 하위영역 및 전체 환산점수 평균을 전국의 KOSS 남성 참고치(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4)와 비교하였다(표 2).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생활습관

| 변인 | 범주 | 빈도(%) |
|----------|---------|--------|
| 최종학력 | 대졸 | 6(6) |
| | 전문대졸 | 37(35) |
| | 고졸 | 59(55) |
| | 기타 | 5(4) |
| 결혼유무 | 미혼 | 92(86) |
| | 기혼 | 15(14) |
| 근속기간 | 6개월 미만 | 42(39) |
| | 13-18개월 | 58(54) |
| | 18개월 초과 | 7(7) |
| 종교유무 | 있다 | 35(33) |
| | 없다 | 72(67) |
| 1주간 음주횟수 | 1회 이하 | 64(60) |
| | 2-3회 | 35(33) |
| | 4회 이상 | 3(3) |
| 흡연상태 | 흡연 | 74(69) |
| | 비흡연 | 27(25) |
| | 과거흡연 | 6(6) |
| 식사습관 | 규칙적 | 29(27) |
| | 불규칙적 | 77(73) |
| 운동습관 | 운동함 | 46(43) |
| | 운동 안함 | 61(57) |
| 취미생활 | 취미있음 | 67(63) |
| | 취미없음 | 40(37) |
| 수면량 | 4시간 이하 | 9(8) |
| | 5-6시간 | 91(85) |
| | 7-8시간 | 7(7) |
| 건강상태 | 매우 좋다 | 15(14) |
| | 좋다 | 33(31) |
| | 그저 그렇다 | 44(41) |
| | 나쁘다 | 15(14) |

그 결과 물리환경 영역 52.17점과 직무요구 영역 53.09점, 직무자율 영역 53.42점은 상위 50% 구간에 해당하였고, 관계갈등 31.56점, 직무불안정 45.32점, 직장문화 34.72점은 하위 50% 구간에 해당하였으며, 조직체계 38.62점, 보상부적절 40.02점은 하위 25%구간에 해당하였다. 총점은 43.73으로 하위 25%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KOSS로 측정된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중간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민간경비원들이 물리적 근로환경, 직무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 및 업무와 관련된 재량활용성의 부족을 직무스트레스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직무스트레스, 정신건강 및 대처방식 간의 연관성

민간경비원의 지각된 직무스트레스 요인, 대처방식과 MMPI-2로 측정된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MMPI-2 임상척도가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임상척도 중 건강염려증(Hs), 우울증(D), 히스테리(Hy) 척도는 8개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과 총점에서 상관관계수 .25-.48로 모두 유의하였고($p < .05$, $p < .01$), 반사회성(Pd) 척도는 물리환경 영역을 제외한 7개 하위영역 및 총점과 상관관계수 .19-.36으로, 내향성(Si) 척도는 직장문화 요인을 제외한 7개 하위영역 및 총점과 상관관계수 .21-.34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p < .05$, $p < .01$). 즉, 민간경비원들이 인식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들은 다양한 신체적 문제를 반영하는 건강염려증(Hs) 척도, 현재 생활에 대한 전

표 2. 민간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 직무스트레스 요인 | 평균 | 전국 참고치(남성) | | | | | | 점수의 의미 |
|--------------|-------|------------|-----------|-----------|---------|--------|--------------------------------|--------|
| | | 하위 25% | 하위 50% | 상위 50% | 상위 25% | 상위 25% | 상위 25% | |
| 물리환경 | 52.17 | 33.3 이하 | 33.4-44.4 | 44.5-66.6 | 66.7 이상 | | 점수가 높을수록 물리환경이 상대적으로 나쁘다 | |
| 직무요구 | 53.09 | 41.6 이하 | 41.7-50.0 | 50.1-58.3 | 58.4 이상 | |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 |
| 직무자율 | 53.42 | 46.6 이하 | 46.7-53.3 | 53.4-60.0 | 60.1 이상 | |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 |
| 관계갈등 | 31.56 | - | 33.3 이하 | 33.4-50.0 | 50.1 이상 | |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갈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 |
| 직무불안정 | 45.32 | 44.4 이하 | 44.5-50.0 | 50.1-61.1 | 61.2 이상 | |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 | |
| 조직체계 | 38.62 | 42.8 이하 | 42.9-52.3 | 52.4-61.9 | 62.0 이상 | |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않다 | |
| 보상부적절 | 40.02 | 55.5 이하 | 55.6-66.6 | 66.7-77.7 | 77.8 이상 | | 점수가 높을수록 보상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적절하다 | |
| 직장문화 | 34.72 | 33.3 이하 | 33.4-41.6 | 41.7-50.0 | 50.1 이상 | |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문화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이다 | |
| 스트레스총점 | 43.73 | 45.0 이하 | 45.1-50.7 | 50.8-56.5 | 56.6 이상 | |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직무스트레스요인이 많다 | |

반적 불만족감 및 부정적 정서를 반영하는 우울증(D) 척도, 자신의 심리적 갈등은 부인하고 모호한 신체적 증상을 반영하는 히스테리(Hy) 척도, 공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반사회성(Pd) 척도,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편감 및 소극적 태도를 반영하는 내향성(Si) 척도와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민간경비원들의 직무스트레스 경험이 특히 심인성 신체증상 호소 및 대인관계에서의 갈등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민간경비원들의 직무스트레스 경험은 경조증(Ma) 척도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다음으로 민간경비원들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MMPI-2로 측정된 정신건강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난 변인 중 경조증(Ma) 척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경조증(Ma) 척도는 대처방식 척도 요인에서 사회적지지 추구 요인을 제외하고는 상관계수 .25-.36으로 모두 유의하였다($p < .05$, $p < .01$). 또한 우울증(D), 반사회성(Pd), 편집증(Pa) 척도는 문제중심적 대처 및 사회적지지 추구 요인과 상관계수 -.30~--.19로 부적인 관련성을 나타냈

표 3.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 대처방식 척도, 다면적 인성검사(MMPI-2) 임상척도 간 상관

| | MMPI-2 | | | | | | | | | |
|----------|--------|--------|-------|--------|------|-------|-------|-------|-------|--------|
| | Hs | D | Hy | Pd | Mf | Pa | Pt | Sc | Ma | Si |
| KOSS | | | | | | | | | | |
| 물리환경 | .32** | .31** | .31** | .13 | .06 | .17 | .15 | .12 | -.09 | .26** |
| 직무요구 | .36** | .34** | .30** | .19* | .27* | .21* | .20 | .19 | -.10 | .24* |
| 직무자율 | .38** | .26** | .27** | .30** | .16 | .39** | .29** | .26** | -.03 | .21* |
| 관계갈등 | .27** | .33** | .25** | .24* | .09 | .28** | .13 | .16 | -.12 | .34** |
| 직무불안정 | .37** | .38** | .31** | .26** | .16 | .07 | .27** | .26** | -.02 | .30** |
| 조직체계 | .36** | .40** | .34** | .31** | .07 | .14 | .19 | .13 | -.08 | .24* |
| 보상부적절 | .34** | .38** | .37** | .31** | -.02 | .18 | .14 | .08 | -.06 | .25** |
| 직장문화 | .35** | .28** | .25* | .34** | .09 | .14 | .28** | .27** | .15 | .15 |
| 스트레스총점 | .48** | .48** | .43** | .36** | .16 | .28** | .28** | .26** | -.07 | .34** |
| 대처방식 척도 | | | | | | | | | | |
| 문제중심적 대처 | -.14 | -.29** | -.17 | -.29** | -.05 | -.21* | -.18 | -.06 | .25* | -.27** |
| 사회적지지 추구 | -.10 | -.22* | -.15 | -.30** | .11 | -.19* | -.09 | -.10 | .11 | -.14 |
| 소망적 사고 | -.04 | -.17 | -.15 | -.15 | .15 | -.07 | .07 | .08 | .27** | -.06 |
| 정서완화적 대처 | .09 | -.18 | -.08 | .03 | .14 | .08 | .09 | .17 | .36** | -.07 |

주. Hs: 건강염려증(Hypochondriasis), D: 우울증(Depression), Hy: 히스테리(Hysteria), Pd: 반사회성(Psychopathic Deviate), Mf: 남성특성-여성특성(Masculinity-Femininity), Pa: 편집증(Paranoia), Pt: 강박증(Psychathenia), Sc: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Ma: 경조증(Hypomania), Si: 내향성(Social Introversio), * $p < .05$, ** $p < .01$.

으며($p < .05$, $p < .01$), 내향성(Si) 척도는 문제중심적 대처 요인에서 상관계수 -.27로 유의하였다($p < .01$). 즉,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하고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 변인은 부정적 정서를 반영하는 우울증(D) 척도, 대인관계에서의 공격적 태도, 의심, 불편감을 반영하는 반사회성(Pd), 편집증(Pa), 내향성(Si) 척도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당면한 문제를 직면하는 문제중심적 대처나 사회적 관계를 지향하는 사회적지지 추구하고 같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대처행동들이 우울하고 무기력한 정

서 및 대인관계에서의 내·외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정신건강 요소들과 부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건강 요인

다음으로 민간경비원들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건강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대처방식과의 상관성이 나타난 5개 MMPI-2 임상척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대처방식 척도 하위영역을 종속변수로

표 4. 일부 다면적 인성검사(MMPI-2) 임상척도와 대처방식 간 다중회귀분석

| MMPI-2 임상척도 | 대처방식 척도 | | | |
|----------------|-----------------|-------------|-----------|-----------------|
| | 문제 중심적 대처 | 사회적 지지추구 | 소망적 사고 | 정서 중심적 대처 |
| D | .17 | .08 | .06 | -.11 |
| Pd | -.44** | -.41** | -.35** | -.10 |
| Pa | -.01 | -.01 | -.07 | .14 |
| Ma | .41** | .25* | .38** | .35* |
| Si | -.20 | -.04 | -.01 | -.02 |
| R ² | .27 | .14 | .16 | .15 |
| F | 6.21** | 3.18** | 3.25** | 3.60** |

* $p < .05$, ** $p < .01$.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그 결과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소망적 사고의 경우 반사회성(Pd), 경조증(Ma) 척도가, 정서중심적 대처의 경우 경조증(Ma) 척도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MMPI-2의 대처방식 척도 설명력은 14.27%로 나타났다($p < .05$, $p < .01$).

이로 보아 쉽게 지치지 않는 심리적 에너지를 반영하는 경조증(Ma) 척도는 당면한 문제에 직면하거나 주변 대인관계에서 지지를 추구하는 과정, 혹은 비현실적인 긍정적 사고에 몰입하거나 불쾌한 정서를 부인하는 과정으로 표현되는 4가지 대처방식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일반인들의 자기주장적인 면모를 반영하는 반사회성(Pd) 척도는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 혹은 대인관계에서 피상적이고 수동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소망적 사고와 같이 바람직한 상

황이나 공상에 몰두하는 대처행동과도 부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경비업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양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원들은 주로 물리적 근무환경 및 직무수행에 대한 높은 부담감,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의 부족을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지각함을 알 수 있다. KOSS를 통하여 민간경비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대제 방식의 야외근무로 인해 육체적 피로를 빈번하게 느끼는 근무환경, 신속한 상황대처 및 엄격한 보고체제와 같은 업무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평소 시간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긴급히 대처해야 한다는 심적인 부담감 및 업무상황에 대해 상사 및 관제 부서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상황 대처에 관련된 명확한 지침을 따라야 하는 업무 특성을 민간경비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KOSS를 활용한 타 직종 대상 연구 중 민간경비원과 마찬가지로 위기상황 종사자인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자율성 결여가 높은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고(권선영, 이은정 및 김희철, 2009), 보안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서비스업에 분류되며 직무재량도가 낮은

수동적 집단으로 나타났는데(주영수, 권영준, 강희태 및 김용규, 2003), 이는 민간경비원 스스로 업무 관련 재량도가 낮다고 인식한 본 연구의 결과와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

다만 조직체계와 보상부적절 요인처럼 조직 구성원으로서 체감하는 업무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대상자들 자체의 특성 및 이들이 속한 조직의 특성일 수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최대 근속년수가 약 2년 남짓이고 대부분이 20대 연령에 해당하는 까닭에 근속기간이 오래된 조직구성원들보다 직장 내 대인관계 및 고용의 불안정성 등 조직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영향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들이 제공받는 금전적 보상이 동종업계 최고의 수준이므로 선행연구에서와는 달리 보상 수준 등 조직 자체에 대한 불만족도는 낮게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직장문화 요인의 경우에도 경비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진환과 송상욱, 2006)와는 달리 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측정도구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들은 주로 직무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박영진과 안황권, 2006; 안황권, 2004; 주일엽과 조광래, 2009) 혹은 질적 연구(김진환, 2009)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민간경비원들의 주관적인 인식이 더 많이 반영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KOSS의 경우 직장문화 요인에 회식자리에 대한 불편감이나 남성 혹은 여성으로 느끼는 불이익과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관계갈등 요인에 업무완료 시 상사나 동료들이 도움을 주는 정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다. 민간경비원들의 경우 관할구역을 단독 근무하는 근무형태로 인해 회식과 같은 사적인 상호작용

이 평소에 많지 않고 구성원 대부분이 남성인 업의 특성 상 이러한 항목들을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고하지 않은 영향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민간경비원들이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성은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하고 같은 적극적인 대처행동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대처이론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대처노력이 외부로 투여되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는 적극적 대처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등 내부로 투여되는 정서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는 소극적 대처로 볼 수 있다(장경문, 2003).

본 연구에서는 상관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적극적 대처행동에 해당하는 문제중심적 대처 및 사회적지지 추구의 경우 우울증(D), 반사회성(Pd), 편집증(Pa), 내향성(Si) 척도와 같이 스트레스 상황의 회피를 의미하거나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정신건강 변인들과 부적인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Ben-Porath(1992)에 의하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남자의 대처 방식에 있어서 우울증(D) 척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피하고 혼자 있는 경향을 의미하고, 반사회성(Pd), 내향성(Si) 척도는 되도록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는 경향, 편집증(Pa) 척도는 스트레스 경험과 연관된 긴장감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경향성으로 나타난다.

셋째, 소망적 사고나 정서중심적 대처와 같은 소극적 대처방식은 민간경비원들의 심리적 적응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원에 대한 회피 기제가 나타나는 반사회성(Pd), 내향성(Si) 척도와 직무스트레스 요인과는 유의한 관련성

이 나타났음을 고려하여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신들이 지각하는 심리적 불편감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양상은 정서중심적 대처와 관련이 있다 (Fleishman, 1984; Pearlin & Schooler, 1978). 또한 억제, 철수, 문제의 회피와 같은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환경적 스트레스와는 관계없이 자신이 지각하는 정신건강 상태를 양호하게 보고하는 경향성이 있다 (Parkes, 1990).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회피하였거나, 혹은 자신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편감에 대해 되도록 방어적인 태도로 양호하게 응답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민간경비원들이 자신들의 정서를 지각하고 표현하는 양상이 이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넷째,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변인 중 반사회성(Pd) 및 경조증(Ma) 척도는 타 MMPI-2 임상 척도에 비해 민간경비원들의 대처행동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건강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반사회성(Pd), 경조증(Ma) 척도는 전반적으로 타 임상척도들에 비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처방식별로 반사회성(Pd), 경조증(Ma) 척도의 특성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문제중심적 대처 전략들은 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대안적 해결책을 찾아 이들을 저울질 해보고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여 행동에 옮기는 것을 포함한다(김혜은, 1999).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

스 상황에 대한 피상적이고 회피적 태도를 반영하는 반사회성(Pd) 척도(김중술, 1988; Ben-Porath, 1992)가 문제중심적 대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중심적 대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조증(Ma) 척도는 일반인들의 경우 다양한 흥미를 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등의 적극적 면모를 의미할 수 있다(김중술, 1988). 이에 반해 일상생활에서의 소극적 태도를 의미하는 우울증(D), 내향성(Si) 척도, 주변 환경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표현하는 편집증(Pa) 척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대처방식과 MMPI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Hovanitz, 1986)에서 남자들의 경우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이 아닌 회피, 자기 기만과 같은 대처행동이 히스테리(Hy) 척도 및 강박증(Pt), 정신분열증(Sc)과 같은 소위 정신증적(psychotic) 척도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 중심의 대처방식이 지각하는 문제상황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발휘되는 점(Folkman, Lazarus, Gruen, & DeLongis, 1986)을 고려하여 민간경비원들이 문제 상황을 인지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향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지지 추구는 개인의 고충을 공개하고 타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대처방식을 의미한다. 이 대처방식의 경우에도 반사회성(Pd) 척도는 부적인 영향을, 경조증(Ma) 척도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척도는 공통적으로 대인관계상의 부적응적 행동을 반영한다. 반사회성(Pd) 척도는 겉으로는 사교적이지만 타인의 욕구나 감정에 무감각하고 이기적이며 미성숙한 태도를, 경조증(Ma) 척도는 우호적이고 사교적이며 정력적이고 말이 많은 등 적극적인 면모를 드

러내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피상적 태도를 의미할 수 있다(김중술, 1988). 따라서 민간경비원들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겉으로는 외향적 태도를 나타내지만 타인에게 진솔한 면모를 드러내며 심리적으로 의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회피할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소망적 사고의 경우에도 반사회성(Pd) 척도는 부적인 영향을, 경조증(Ma) 척도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처방식은 공상 등을 통해 현실적인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대처행동을 의미하는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사회성(Pd), 경조증(Ma) 척도의 공통점은 문제상황에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근거 없이 과대하게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성이다(김중술, 1988). 다만 민간경비원들의 경우 스트레스에 대한 회피적 태도를 의미하는 반사회성(Pd) 척도 점수가 상승하더라도 소망적 사고에 몰입하는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반사회성(Pd) 척도가 상승할 경우 소망적 사고에 몰입하는 경향(Ben-Porath, 1992)과는 다른 양상인데, 이에 대해 향후 연구에서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서중심적 대처의 경우 경조증(Ma) 척도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들이 정서를 조절하는 방식을 반영한다고 보여진다. 경조증(Ma) 척도는 불쾌한 정서에 대해 부인(denial)하거나 자극추구적인 행동에 몰입하는 기제를 의미하며(김중술, 1988), 대처행동 면에서는 긴장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 상태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극적 활동(예: 음주)을 하는 경향으로 설명된다(Ben-Porath, 1992). 한편 우울 및 피해의식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경우 상승되는 우울증(D), 편집증(Pa), 내향성(Si) 척도는 정서중심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민간경비원들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불쾌한 정서를 잘 감내하지 못하는 경향성이나 자극추구적이고 다소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피상적인 태도가 정서중심적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민간경비원들의 적극적이고 외향적 태도가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문제 상황을 직면하거나 진솔한 대인관계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성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당면한 상황을 직시하는 대신 자극추구적인 활동을 통해 부정적인 상황이나 정서를 회피하는 경향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 정신건강과 대처방식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성들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통제(self-control)를 하는 방식으로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Parkes, 1990). 또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MMPI 프로파일 상에서 심리적 적응 상태가 양호하게 나타나는 남성들의 경우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회피, 자기 비하와 같은 대처방식을 덜 사용한다(Hovanitz & Kozora, 1989). 이러한 결과들을 참고하여 민간경비원들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MMPI 프로파일 양상 및 대처행동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경조증(Ma) 척도는 정력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경향성으로서(김중술, 1988) 기본적인 심리적 에너지로 작용하여 거의 모든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로 경찰의 인성적 특성으로 설명되는 A Type 성격의 소유자들은 참을성이

부족하고 타인의 행동에 의해 쉽게 짜증을 느끼는 경향을 보이는데(Evans, Coman, & Stanley, 1992) 이러한 경향성은 경조증(Ma) 척도가 측정하는 심리적 특성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따라서 업무환경 및 직무특성이 유사한 민간경비원들도 이러한 직업적 성격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예상된다.

아울러 선행연구들(Bernstein, 1980; Lipman, 1988)과 본 연구결과를 참고해 보았을 때 반사회성(Pd) 척도도 민간경비원들의 행동 특성을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인성적 변인으로 생각된다. 경비원들에게 있어서 반사회성(Pd) 척도는 범죄와 같은 부적응적인 행동을 변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Bernstein, 1981). 유사 직종인 경찰의 경우에도 일반인들보다 히스테리(Hy), 반사회성(Pd), 경조증(Ma) 척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Bernstein, Schoenfeld, & Costello, 1982; Carpenter & Raza, 1987). 이에 향후 좀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민간경비원의 인성적 특징을 파악해보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들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최대 근속기간이 22개월로 비교적 짧고 나이가 20대인 집단이었다. 따라서 근속년수에 따른 근무숙련 정도가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비교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표본 수의 부족으로 인해 민간경비원들의 생활방식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이승욱, 이종태, 손혜숙 및 김성준, 2002)에 따르면 흡연, 음주 및 수면과 같은 생활습관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도되며 직무요구도가 높고

직무자율성이 낮은 집단, 즉 고 긴장 집단의 경우 흡연율이 높으며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결과 민간경비원 또한 이와 같은 고 긴장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직무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이들의 생활습관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 정신건강과 대처방식 간의 관련성을 각각 분석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경로모형 등을 통해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및 대처방식 간의 전체적인 연관성을 개관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MMPI-2 척도별 구간 점수를 매뉴얼 기준(김중술 등, 2005)에 따라 45점 이하(낮음), 45-54점(보통), 55-64점(약간 높음), 65점 이상(높음)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 임상척도의 전체 평균점수만을 정신건강 변인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심리적 부적응 집단과 양호한 적응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높은 심리적 스트레스군과 낮은 심리적 스트레스군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을 비교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MMPI-2 임상척도로 표현되는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 요인과 직무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민간경비원들의 안정적인 심리적 적응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스트레스의 결과로 인한 다양한 직무 행동 및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된 변인 간의 관련성, 개입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민완, 박기범, 전용태 (2006). 민간경비조직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1호, 1-20.
- 강병우 (2009).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13(1), 35-48.
- 김상균, 조성호 (2002). 한국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5호, 71-88.
- 권선영, 이은정, 김희철 (2009). 대구 지역 남자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다면적 인성검사(MMPI) 상의 임상척도와의 관련성. 생물치료정신의학, 15(1), 96-104.
- 김 구 (2005).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치안센터 민원담당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3), 59-87.
- 김의철, 박영신 (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 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96-126.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정희, 이장호 (1985).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행동과학연구, 17(1), 127-138.
- 김중술 (1988). 다면적 인성검사: MMPI의 임상적 해석.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중술, 한경희, 임지영, 이정흠, 민병배, 문경주 (2005). 다면적 인성검사 II 매뉴얼. 서울: (주)마음사랑.
- 김진환 (2006). 경호직무분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분야 의식구조와 가치관에 관한 연구 -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생들을 중심으로. 국제경호협회 정기학술발표회, 73-86.
- 김진환 (2009). 민간경호원의 스트레스 유발요인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8호, 89-105.
- 김진환, 송상욱 (2006). 민간 경호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7(5), 395-404.
- 김순양, 구종태, 윤기찬 (2002). 일선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및 유발요인 분석. 행정논총, 40(1), 123-147.
- 김태민 (2002). 민간경비 업무 수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석, 한광현 (1991). 직무스트레스의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산업개발연구, 제10호, 83-104.
- 김환철, 권근상, 고대하, 임중환, 박신구, 신주연, 이의철, 김용규 (2006). 한 대학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대한산업의학회지, 18(1), 25-34.
- 김혜온 (1999).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심리적 안녕감. 여성연구, 7(1), 129-142.
- 나명훈 (2002). 경호전문가의 스트레스요인이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이직결정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안전교육학회지, 5(2), 73-87.
- 박 석, 정석현, 최무현 (2008). 민간 경호 경비원들의 근무시간이 피로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7호, 131-141.

- 박영진, 안황권 (2006). 민간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티리서치, 17(1), 239-248.
- 박영진, 안황권, 왕석원 (2006). 민간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2, 177-200.
- 박인만 (2006).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응양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성원 (2006). 경찰공무원의 일상적·직업적 경험이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성조, 안황권 (2005). 경비원의 직무환경과 사기 및 이직의사와의 관계. 경호경비연구, 제9호, 155-175.
- 안황권 (2004). 특수경비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7호, 212-230.
- 유정이 (1999). MBTI를 통해서 본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유형학회지, 6(1), 107-120.
- 이근춘, 송강영 (2010). 민간경비원의 여가계약이 직무스트레스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4), 359-366.
- 이동수, 김지혜 (2001).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과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자존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40(2), 282-291.
- 이동철, 전현준, 신동훈, 정인성, 이미영 (2009). 소방관의 직무스트레스와 다면적 인성검사의 연관성. 대한산업의학회지, 21(4), 324-336.
- 이상철 (2003). 경호심리학. 도서출판 흥경.
- 이승욱, 이종태, 손혜숙, 김성준 (2002). 근로자들의 직종별 직무스트레스. 인제의학, 23(5), 677-689.
- 장경문 (2003).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9(4), 143-161.
- 장세진 (2002). 스트레스의 사회심리적 요인. 한국역학회지, 24(2), 148-163.
- 장세진, 고상백, 강동묵, 김성아, 강명근, 이철갑, 정진주, 조정진, 손미아, 채창호, 김정원, 김정일, 김형수, 노상철, 박재범, 우종민, 김수영, 김정연, 하미나, 박정선, 이경용, 김형렬, 공정욱, 김인아, 김정수, 박준호, 현숙정, 손동국 (2005).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대한산업의학회지 17(4), 297-317.
- 정대용, 김춘광, 이원행 (2009). 민간경비업체에서 상사의 지원이 조직성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23(3), 469-487.
- 정대용, 이원행, 김춘광 (2009). 민간경비업체 상사의 리더십이 경비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1-15.
- 정한귀 (2006). 민간수행경호의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학위논문.
- 조민상, 명도현, 박한호 (2009). 한국민간경비학회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4호, 195-210.
- 주영수, 권영준, 강희태, 김용규 (2003). 한국의 직업별 직무스트레스 수준 평가: 일부 직종을 대상으로. 대한산업의학회지, 15(4), 422-435.
- 주일엽, 조광래 (2009). 민간경비원의 의사소통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4호, 243-271.

- 최미리 (1999). 직무스트레스가 직장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기전문대학 논문집, 제 27호, 249-254.
- 통계청 (2007). 한국표준직업분류 제 6차 개정판. <http://kostat.go.kr/kssc/stclass/StClassAction.do?method=ksscTree&classKind=2&kssc=popup>.
- 하재혁, 김동일, 서병성, 김원술, 유승호, 김수근 (2008).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 대한산업의학회지, 20(2), 104-111.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4).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연구(2차년도): 부록 1. 한국형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도구 사용법. 127-135.
- 한상암 (2004).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행정논집, 제30호, 211-236.
-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채정민 (2001). 스트레스상황 특성에 따른 적응적인 대처양식: 대처양식의 유연성 제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23-143.
- 현명선, 정향인, 강희선 (2009). 군인들의 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8(3), 305-312.
- Abdollahi, M. K. (2002). Understanding Police Stress Research.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Practice*, 2(2), 1-24.
- Alfredsson, L., Åkerstedt, T., Mattsson, M., & Wilborg, B. (1991). Self-reported health and well-being amongst night security guards: a comparison with the working population. *Ergonomics*, 34(5), 525-530.
- Ben-Porath, Y. S. (1992). 8. Topics in MMPI-2 and MMPI-A Interpretation Edited by James N. Butcher and John R. Graham (NOTES): Assessing Coping Styles with the MMPI-2. 한국심리학회, 92WORKSHOP, 142-144.
- Bernstein, I. H. (1980). Security Guards' MMPI Profiles: Some Normative Data.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4(4), 371-380.
- Bernstein, I. H. (1981). One Way To Screen Security Guards: Using a Standard Format To Test for Maladjustment. *Security Management*, 25(9), 35-38.
- Bernstein, I. H., Schoenfeld, L. S., & Costello, R. M. (1982). Truncated Component Regression, Multicollinearity And The MMPI's Use In A Police Officer Selection Setting.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7(1), 99-116.
- Brown, J. M., & Campbell, E. A. (1990). Sources of occupational stress in the police. *Work & Stress*, 4(4), 305-318.
- Carpenter, B. N., & Raza, S. M. (1987).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police applicants: Comparisons across subgroups and with other populations.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5(1), 10-17.
- Conley, S., & Woosley, S. A. (2002). Teacher role stress, higher order needs and work outcomes.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8(2), 179-197.
- Cooper, C. L., & Marshall, J. (1976). Occupational sources of stress: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lating to coronary heart disease and mental ill health.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49(1), 11-28.
- Cortina, J. M., Doherty, M. L., Schmitt, N., Gary K., & Smith, R. G. (1992).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in the IPI and MMPI

- Predictors of police performance. *Personnel Psychology*, 45, 119-140.
- Davidson, M. J., & Cooper, C. L. (1981). A Model of Occupational Stress.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23(8), 564-574.
- Detrick, P. (2001).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in police officer selection: Normative data and relation to the Inwald Personality Inventor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2(5), 484-490.
- Evans, B. J., Coman, G. J., & Stanley, R. O. (1992). The Police Personality: Type A Behavior and Trait Anxiet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0, 429-441.
- Fleishman, J. A. (1984).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Coping Pattern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5(2), 229-244.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a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 Folkman, S., Lazarus, R. S., Gruen, R. J., & DeLongis, A. (1986). Appraisal, coping,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3), 571-579.
- Hiatt, D., & Hargrave, G. E. (1988). MMPI Profiles of Problem Peace Officer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4), 722-731.
- Hovanitz, C. A. (1986). Life Event Stress and Coping Style as Contributors to Psychopatholog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1), 34-41.
- Hovanitz, C. A., & Kozora, E. (1989). Life Stress and Clinically Elevated MMPI Scales: Gender Differences in the Moderating Influence of Cop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5(5), 766-777.
- Lazarus, R. S., & Folkman,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Lipman, I. A. (1988). Personnel Selection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More Than a Résumé.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498,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ssues and Trends*, 83-90.
- Meadows, R. J. (1987). Negligence in the Private Guard Industry. *Journal of Security Administration*, 10(2), 12-20.
- Parkes, K. R. (1990). Coping, Negative Affectivity, and the Work Environment: Addictive and Interactive Predictors of Mental Healt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4), 399-409.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2(1), 1-21.
- Stewart, J. K. (1985). Public Safety and Private Pol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 758-765.

1차 원고접수 : 2010. 7. 17

2차 원고접수 : 2010. 10. 16

3차 원고접수 : 2010. 11. 10

최종게재결정 : 2010. 11. 2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Stress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Mental Health and Stress-Coping

Jung-Sun Shim

Maumnanumteo Counselling Center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stress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mental health and coping strategy. The subject was the 107 employees of private security company located in Seoul. They were gathered to be entrained job-specific skills in the training institute. The measurement scale for the job stress was KOSS(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developed by Kim etc.(2005), for mental health was MMPI-2(Minnesota Multiphasic Psychological Inventory-2) and for coping strategy was the Coping Checklist developed by Folkman & Lazarus(1985).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he physical environment, job demand and insufficient job control were perceived high level as the job stressors among the private security guards. Second, overall job stress level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psychosomatic symptoms and interpersonal conflict represented as the increased scores of Hs(Hypochondriasis), D(Depression), H(Hysteria), Pd(Psychopathic Deviate), Si(Social Introversion) scale of MMPI-2.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Ma(Hypomania) and Problem solving, Wishful Thinking, Emotion-Focused coping. And D(Depression), Pd(Psychopathic Deviate), Pa(Paranoia) scale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Problem solving, Seeking social support. Finally, as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Pd(Psychopathic Deviate) and Ma(Hypomania) scale of MMPI-2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variables affecting stress coping strategy, and these two scales seem to represent personal characteristic of private security guards. Further and more detailed study needs to be conducte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mental health and coping strategy of private security guards.

Key words : private security guard, job stress, mental health, MMPI-2, coping strategy